



이머지 페스티벌(Emerge Festival) – 아이들의 천국

오는 9월과 10월 이머지 페스티벌에서 새롭고, 화려하고 재밌는 아이들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.

월로비 시티 카운슬이 주최하는 노스 쇼어 지역의 최대 봄맞이 축제 ‘이머지 페스티벌’은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및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포함해 약 60개의 이벤트가 열린다.

월로비 시티 카운슬의 게일 자일스-기드니 시장에 따르면, 올해 페스티벌은 10대를 포함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더 많아졌다.

자일스-기드니 시장은 “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는데, 특히 올해는 10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, 댄스 클래스, 워크샵 등을 운영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페스티벌 하이라이트:

- 거리 축제(StreetFair), 9월 1일
 - 마법의 길(Magical Lane) – 유니콘 타기, 농장 동물들 만나기, 점핑 캐슬, 페이스 페인팅 등 어린이들을 위한 환상의 세계
 - 키드존(Kidzone) – 체조, 댄스, 힙합쇼 등 10대 초반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
 - 더 콘코스(The Concourse) – 서커스, 쿵푸 워크샵, 힙합 워크샵, 치어리딩 워크샵
 - 전자스포츠 스테이지(Esports Stage) – 게임 초보자들 및 게임광, 코스플레이 팬들을 위한 곳
- 페스티벌 오아시스(Festival Oasis), 10월 3-5일(11am – 오후 늦게까지). 10대 초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방학맞이 체험 활동. 더 콘코스 무대 뒤편에 마련된 무료 댄스 클래스, DIY 워크샵(슬라임 만들기, 드림캐쳐 만들기, 훌치기 염색). 자녀들이 즐기는 동안 부모들은 더 콘코스의 레스토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. 매일 저녁 5시부터 무료 가족영화 상영. 더 콘코스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곳.
- 월로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상영되는 영화 ‘꼬마 돼지 베이브(Babe)’, 9월 2일, 더 콘코스
- 더 그루팔로(The Gruffalo), 라이브 무대 공연, 9월 9-12일, 더 콘코스
- 미취학 아동 대상의 부시워킹, 부시 스크램블스(Pre-Schoolers Bush Scrambles), 9월 12일(10am - 11:30am)



- 제럴 퍼핏츠 – 아기 돼지 삼형제(Three Little Pigs) 인형극, 9월 25일, 28일, 30일(10:30am - 11:30am)
행사의 전체 일정 및 정보는 웹사이트 www.emergefestival.com.au를 참조하세요.

-끝-

미디어 관련 문의(인터뷰 또는 사진)는 아래로 연락하세요:

줄리아 피프스

미디어 및 마케팅 팀리더

이메일: Julia.Phipps@Willoughby.nsw.gov.au

전화번호: 9777 7896